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96 하반기 성경연구원 성경공부 다함께 성경을 배웁시다

8월 31일(토) 오후 7시, 갈릴리홀에서 개강예배

96년도 하반기 성경연구원이 오는 8월 31일(토) 오후 7시 갈릴리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다.

전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있게, 체계있게 공부하여 생활에 적용함으로 천국일꾼으로 봉사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토록 하기 위해 늘 봄과 가을에 학과를 개설하여 성경공부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성경연구원의 공부는 모든 충헌교인(학력, 연령, 신급, 직분에 제한 없음)에게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교인이라도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입학할 허락해 오고 있다.

성경연구원 하반기 교육은 직분자 양육, 주간성경공부, 양육훈련, 제45기 교사양성부, 제15기 찬양대원양성부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직분자 양육부부는 권사반과 안수집사반의 2개 반으로, 주간성경공부는 8개 부문의 11개 반, 제45기 교사양성부는 주일반과 화요일반으로, 제15기 찬양대원양성부는 주일반으로 각각 되어 총 5개 부문에 16개 반을 개설했다.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사양성부와 찬양대원양성부를 수료해야 한다.

성경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복이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성경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각 부분별 시간 및 장소는 옆의 표와 같다.

● 제45기 교사양성부(96.8.31~97.1.12, 총 20주)

		제1교시		제2교시	
		주일반 15:00~15:50 화요일반 19:00~19:50		주일반 16:00~16:50 화요일반 20:00~20:50	
주일반	화요일반	강의제목	강사	강의제목	강사
8/31	오후 7시	개강예배	김희수 목사		
9/1	9/3	모세오경	성봉환 목사	역사서	성봉환 목사
9/8	9/10	주일학교 상담	김희수 목사	주일학교 상담	김희수 목사
9/15	9/17	기독교교육	박경환 목사	기독교교육	박경환 목사
9/22	9/24	시가서	이준우 강도사	선지서	이준우 강도사
9/29	10/1	교회론	장우천 목사	종말론	장우천 목사
10/6	10/8	바울서신	정광욱 목사	바울서신	정광욱 목사
10/13	10/15	기독교교육 행정	최영찬 목사	기독교교육 행정	최영찬 목사
10/20	10/22	복음서	한근수 목사	복음서	한근수 목사
10/27	10/29	그리스도론	조운재 목사	구원론	조운재 목사
11/3	11/5	전도론	장경철 목사	전도론	장경철 목사
11/10	11/12	신론	김찬곤 목사	인간론	김찬곤 목사
11/17	11/19	새신자 양육	윤삼중 목사	새신자 양육	윤삼중 목사
11/24	11/26	학습지도법	김필수 목사	학습지도법	김필수 목사
12/1	12/3	예배론	현상민 목사	교회음악	현상민 목사
12/8	12/10	청지기론	이홍성 목사	청지기론	이홍성 목사
12/15	12/17	교사론	이승림 목사	교사론	이승림 목사
12/22	12/24	연구수업	이종대 목사	연구수업	이종대 목사
12/29	1/5	교생실습 교회학교 배치 및 소개, 견의 (3주간) 교육실습(참관/인도)		1주 / 각부 부장 및 지도교역자, 학생 2주 / 부감, 처장, 교사	
1/12					

● 제15기 찬양대원양성부(96.8.31~96.11.24, 총 13주)

		제1교시(15:00~15:50)		제2교시(16:00~16:50)	
		강의제목	강사	강의제목	강사
8/31	개강예배	김희수 목사			
9/1	찬양대원의 영성	현상민 목사	교회일꾼의 자격	김찬곤 목사	
9/8	합창호흡 및 발성	김의주 선생	합창호흡 및 발성	김의주 선생	
9/15	합창호흡 및 발성	김의주 선생	합창호흡 및 발성	김의주 선생	
9/22	초급시창	조신욱 집사	초급시창	조신욱 집사	
9/29	초급시창	조신욱 집사	초급시창	조신욱 집사	
10/6	영적 예배와 찬양	성봉환 목사	은사와 봉사	조운재 목사	
10/13	중급시창	장기범 집사	중급시창	장기범 집사	
10/20	중급시창	장기범 집사	중급시창	장기범 집사	
10/27	고급시창	이진우 선생	고급시창	이진우 선생	
11/3	고급시창	이진우 선생	고급시창	이진우 선생	
11/10	합창 워크샵	김철륜 집사	합창 워크샵	김철륜 집사	
11/17	합창 워크샵	김철륜 집사	합창 워크샵	김철륜 집사	
11/24	성경에 나타난 찬양	장경철 목사	찬양대원의 자격	박경환 목사	

● 주간성경공부(96.8.31~96.12.19)

시간	과목	강사	시간	과목	강사
화 10:00-11:00	갈라디아서	한근수 목사	목 10:00-11:00	사도행전	윤삼중 목사
11:00-12:00	열왕기	이준우 강도사	10:00-11:00	공관복음	장봉생 목사
12:00-1:00	사무엘서	정광욱 목사	11:00-12:00	느헤미야	김동식 목사
1:00-2:00	요한복음	장우천 목사	11:00-12:00	에베소서	이승림 목사
수 9:30-10:30	크로소웨이2	최영찬 목사	12:00-1:00	욥기	김필수 목사
			12:00-1:00	소산지서	이홍성 목사

● 직분자교육(96.9.4~96.12.11)

반의 종류	안수집사반	권사반
강사	이종대 목사	장봉생 목사
시간	수 20:00-21:30	수 13:00-14:00

● 제5기 양육훈련반(96.8.31~96.12.19)

반의 종류	기초 1년차반	기초 2년차반	신입반
강사	최영찬 목사	김희수 목사	장봉생 목사
시간	화 19:00-20:00 수 20:00-21:00 목 11:00-12:00	수 14:00-15:00 목 12:00-13:00	목 12:00-13:00

전 교인 대상으로 성경 읽기 특별 집회

8월 26~29일, 기간 중 새벽, 오전, 저녁 세 차례

교회는 오는 8월 26일(월)~29일 4일간 성경 읽기, 암송 특별 집회를 갖기로 했다. 강사는 성경 통독 집회를 실시하는 요한선교단의 대표인 박종면 목사이다.

4일간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세 차례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고 암송 및 통독에 관한 특강을 실시한다. 저녁시간에는 간증 및 설교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기간 동안 새벽과 낮 시간을 통

해 신약성경 중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를 통독하게 된다.

요한선교단은 전국을 순회하며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집회를 인도하는 단체이다. 또한 이처럼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게 됨에 따라 그 과정 중에 많은 유익한 일들도 생겨 간증자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특별집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수재민을 도웁시다

이번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방에 쏟아진 가뭄 폭우로 엄청난 재산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수 십명의 인명마저 순식간에 잃게 되어 피해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주민들과 정부·당국은 최선을 다하여 피해 복구와 구호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충헌교회에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불의의 재난으로 슬픔과 실의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을 돕는 일에 온 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 모금기간 : 1996년 8월 31일까지

▶ 접수처 : 사무국(교육관 1층)

▶ 모금품목 : 성금 및 생필품(식품 및 비누, 제약, 젖솔, 수건 등)
단, 희류품은 제외함.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원수들 앞에서 담대한 신앙고백(1)

(시편 27:1-6)

저자의 환경은 다윗 장군이 사울 왕의 난을 피할 때에 지은 시편인지 또 왕으로 20년이 지난 다음에 셋째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일시 도망갔을 때에 지은 시편인지 확실히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부분을 보면 분명히 압살롬의 난을 피해 갈 때에 지은 시 같은데 10절에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렸으니' 하는 말을 보면 장인 사울 왕에게 버림당했을 때에 기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1. 다윗의 신앙고백이 어떠합니까(27:1-3)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태로운 세상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안보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인생은 약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저것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신·구약을 통해서 36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66번이나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이 무서운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질병, 전쟁, 입학시험, 가난 등 여러 가지로 무서워서 벌벌 떨니다. 세상은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세상이요, 인간들은 위로와 보호를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1) 여호와께 나의 빛이십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생각하여 볼 때에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압살롬은 천하에 지혜로운 모략가입니다. 거기다가 다윗 임금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아는 모략도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을 거느리고 나오니 얼마나 위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캄캄한 밤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으므로 무섭지 않다. 그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나아간 자는 그 빛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우주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셔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나는 행복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심판의 뭉둥이를 들면 나는 패배가 남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을 가면서도 '여호와께 나의 빛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가게 되면 무서움이 있겠지만, 빛 가운데 가고 있으니 겁나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앞길이 환하고, 좌우를 분별할 지혜가 생기고, 생명이 자

라나는 발전이 있고, 꽃이 피는 기쁨이 있고, 열매가 맺히는 성공이 있으니 겁과 두려움은 없습니다.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빛이니 나의 앞길이 환하게 내다보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가지만 나는 잠깐 후에 내게 올 축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길이 캄캄한 절망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여호와께 나의 빛이신고로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고 신앙고백을 합니다.

(2) 여호와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근심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의 불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니 여호와께 구원이십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은 구원을 주시고, 현재에 계속되는 사건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구원의 완성을 베풀 주시니 무엇을 무서워 하겠습니까.

(3) 여호와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로 살게 하시는 힘이십니다. 육신이 숨만 쉬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일하고 올바른 승리자가 되면서 값있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기쁘다.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도 기뻐해라. 우리 다 같이 기뻐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의 장명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모시면 사는 날이 길든지 짧든지 값있게 살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오래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값없이 삽니다. 예수님 모시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만 모시면 육신이 죽는 날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4) 여호와께 나의 승리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도망가는 것 같으나 전쟁이 끝날 때에는 승리할 것 아니까安然(安然)합니다.

악한 자들이 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를 바보로 취급을 합니다. 악한 자들이 바로 살고자 하는 악한 자의 등가죽을 벗기려고 달려들어 이를 갑니다. 악한 자들이 바로 사는 자들을 어떤 때는 감옥에 가두고 때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악한 자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포로드개를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렸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몰아 넣었던 악한 간신들이 제회와 제회 식구까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악한 자가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의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환난을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 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초막 속에 숨겨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 보호를 못 받을 초막인데, 하나님의 권능은 그곳에서도 넉넉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다. 6·25전쟁 때 북쪽에서 남쪽을 밀고 넘어 왔지만 승리는 우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니 그러므로 나는安然히 거하리다'

2.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27:4-6)

(1) 여호와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품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그 교훈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므로 즐거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되 충성되게 순종하면서, 늙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는 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으니 어려서부터의 소원인 하나님의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2) 정막 은밀한 곳에 숨고 싶습니다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환난을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 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초막 속에 숨겨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 보호를 못 받을 초막인데, 하나님의 권능은 그곳에서도 넉넉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다윗 임금님이 사울 왕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한 번은 어느 굴에 있었 습니다. 사울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굴에 있는 산을 포위했는데 사울 왕이 굴을 보고 '여기에 숨어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굴 아귀에다가 불을 질러 놓았다면 다윗 장군과 부하들이 몽땅 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굴을 보고 '선전하겠구나. 여기에서 낮잠이나 한잠 자야 되겠구나' 하고 그 굴에 들어가서 낮잠을 잤 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꼭 잡혀 죽을 장소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오묘하게 그곳을 피난처로 만드시고 승리의 장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만나도 하나

님이 나를 숨겨 주시면 내게 손댈 자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이 비밀히 초막 속에서도 완전히 지켜 주실 것이니 특별한 피난처가 아닌 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만 받으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는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바위 위에 두신다는 말은 전쟁이 직접 일어나서 얼마 동안은 숨겨 두셨다가 이제는 싸워야 될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싸워야 될 때가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세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높은 바위 위에서 있고 원수는 바위 밑에 있습니다. 바위 밑에서 아무리 위를 향해서 싸우려고 예썰도 위에서 들 하나만 내려쳐도 쉽습니다. 문제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바위 요새지에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원수와 싸워 승리하게 하십니다. '원수와 싸울 때에는 누구라도 흔들 수 없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세워 주시는 것을 내가 이미도 체험했고 또 앞으로도 체험할 것입니다.'

(3) 여호와께 집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내가 쫓겨 나와서 잠시 동안은 수많은 원수에게 포위를 당하고 쫓겨 가는 것처럼 보이고, 원수들이 볼까봐 숨어 있는 졸장부 같으나, 잠깐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는 장군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실 때에는 수많은 백성이 대환영하고 나를 기뻐하던 원수들은 숨어서 구경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에 나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마음껏 찬미를 부르고 싶습니다'

며칠이 못돼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드리고 판인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편안히 지냈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제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

96 영아부 여름성경학교와 교사수련회를 마치고 참 평안으로 화답하신 하나님

서명숙
(집사, 영아부 부감)

6월 24~27일의 동서울 노회 주회 교사 강습회에 교사들이 거의 다 참석하여 부흥회서, 강의에서 뜨겁게 은혜를 받았다. 마지막 부흥회 때 통성기도로 마음에 다짐하기를, "이 시대를 저희에게 맡기신 주님, 감당케 하소서! 사랑으로, 지혜롭게, 겸손하게, 봉사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어찌 될지 저희 손에 있습니다. 도와 주소서! 저희를 먼저 가르쳐 주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성경학교로 1주일 앞두고 영아부실에서 부장 정광호 장로님과 교사들이 기도회로 모여 합심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 새 찬양을 익히며 율동 연습을 하는 교사들의 마치 영아부 아기 같은 예쁜 저 모습! 우리가 서로 예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하나님은 참 평안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신다.

7월 14일 영아부 주일 예배를 마친 엄마들의 손을 붙잡고 전도사님은 "이번 성경학교에 꼭 나오셔야 돼요, 세상 교육 받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서 배우는 하나님 교육이 중요합니다."라고 구수한 경상도 말씨로 출석을 독려했다.

7월 17일 어, 아침부터 비가 오네. 어찌나, 우리 엄마들 오려다가 주저 앉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예년만큼은 오겠지 85명? 지난주 172명이었는데

60%는 와야 되는데, 초조한 나의 예상외로 첫날 75% 128명 왔다. 엄마들은 아기를 업고 우산을 바치고 무거운 우유와 기저귀 가방을 메고 왔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엄마들의 아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기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아기들, 그들의 마음에 싹트는 찬송, 상상도 못했던 만들기 시간, 간식, 바구니 터뜨리기, T셔츠 정말 즐거웠지. 태풍이 제주도를 향해 오고 있다. "주님 안돼요.

곳곳에 성경학교가 열리고, 농사도 잘되어 복한도 도와 줘야 하는데, 도와 주세요." 영아부 아기들은 찬양하며 몸짓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7월 18일 오전 몇쟁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태풍은 어디로 갔을까? 제주도 밑에서 우회전했지.



비개인 날의 아침 햇살은 금방 목욕한 영아부 아기의 모습이야.

예뻐요, 예뻐요, 정말 예뻐요. 오늘은 둘째날이자 마지막 날. 날씨가 너무 좋은데, 혹시 날씨가 좋다고 아기와 엄마들이 야외로 놀러 가지는 않겠지. 작년에는 67명밖에 안와서 실망이 컸는데, 100명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듣기로 허락하신 자녀를 148명 보내셨다. 할렐루야!

시청각을 통하여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만아들의 생명을 건지는 아버지의 신앙과 예수님의 피

를 믿고 구원 받은 영아부 아기들에 대하여 붉은 물감을 칠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다.

성경학교는 특별한 날! 김창인 목사님이 오셔서 아기와 엄마, 그리고 태아인 동생들을 위해 축도해 주셨다. 천국 일꾼되라고! 영아부 성경학교는 말씀과 교제가 있는 곳임이 틀림없다. 특히 직장 출근하는 아기 엄마 대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심지어 아기 말은 탁아모까지 대신 오셨다.

유은경 선생님의 즐거운 놀이시간, 현상민 목사님의 유익한 특강. 성경대로 교육하라는 권면의 말씀과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찬양은 무척 좋았다.

우리에게 은혜로운 특강을 듣도록 좋은 목사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주일에 또 만나요."

7월 18일 오후 교사들이 설 틈이 없다. 발리 점심 먹고 자녀들과 함께 교사수련회를 떠나기 때문이다. 장소는 경기

도판,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 아이들에게 찬송을 시키니 어려운 찬송을 은혜스럽게 부른다. 교사들이 은혜를 받았다. 우리 충현교회 교육 부서부서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잘 양육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숙소에도 도착해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조별로 자리를 잡았다. 앞산, 뒷산, 시원한 개울물!

하나님께서 선생님들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요.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했다. 어제, 오늘 새로 배운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 점점 커지고 멀리 퍼진다. 산아, 오랫동안 좋은 찬송을 들어 봤지.

저녁 9시쯤 모닥불을 피우고 친교를 했다. 게임은 어찌 그리 열심히 하는지.

11시,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는다. 어제, 오늘 있었던 영아부 성경학교를 생각하면 행복하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7월 19일 오전 각자 개인 기도 후 산에 올랐다. 신선한 공기! 끝없는 숲! "정상까지 가 봅시다." "힘들어요, 배 고파요." "2km만 가면 돼요. 힘내세요." 얼마나 얼마나 참고 걸어갔을까. 땀이 비오듯 했다. 얼마쯤 가니 햇살이 비친다. 맑은 물에 깨끗이 세수한 햇살! 오랫동안 이구나. 거의 정상에 올라올 때에야 바람이 불었다. 해발 864m. 이렇게 바람이 고마울 줄이야. 깨끗한 하늘 아래로 흰 구름이 청록색 산과 아침 인사를 하는 것 같다. 손에 손을 잡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 통성기도를 했다. 눈을 떠보니 영아부 흰색 T셔츠를 모두 입은 선생님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저 산보다 더. 저 구름보다 더.

내려올 때는 계곡을 끼고 내려왔다. 조그만 물길 조금 더 큰 물줄기. 둥글둥글 다듬어진 돌. 뾰족뾰족한 돌. 그것들을 보기에는 좋았는데 하산할 때 무척 힘들었다. 주님, 어디다 쓰시려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그대 영아부 교사들로 육신이 튼튼해야 해. 초등학교 5학년의 효정이가 따라 갔는데 기특하다.

식사 당번들은 우리를 기다리며 하산 예정 시간을 4시간 지났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다. "벌로 10바퀴 돌아요!" "제발 봐 주세요!" 아이들은 알은 물가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성경학교를 시작케 하시고 수련회로 마무리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중등2부 여름수련회를 돌아보며 -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한 시간들

김현진
(중등2부)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중등2부 수련회가 있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자'라는 주제 아래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한 많은 프로그램들로 인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

먼저 '신약의 산책'은 지난 겨울 수련회에 이어 성경을 좀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시간에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

던 것이 너무 감사했다.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지 못했는데 친구들과 정말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을 드리니 내 영혼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또 부흥회 시간에는 대속죄일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나를 잠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특히 산상기도회는 이번 수련회 기간 중 가장 은혜스런 순간이었다. 그 동안의 내 생활을 반성해 보고 다시금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보였던 학교와 가정, 교회의 일들을 염두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던 것에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나를 돌아보며 내게 감사할 조건이 너무

나도 많음을 깨달았다. 기도회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지만 산을 내려오면서 주님 앞에서 다짐한 것들을 잘 실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밖에도 친구들과 화합하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엄마오로 가는 길'이나 '하나 만들기', 컴퓨터 통신, 뉴에이지 운동 등 실제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들을 다루었던 '선택 특강', 점통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를 악 물어가며 했던 고달픈 찬물 샤워도 기억에 남는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케 하시고, 또 많은 은혜로 채워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토막소식

▶ 5-1교구 독산1구역의 김경진 집사가 청호정수기 1대와 공기정화기 1대를 기증했다. 정수기는 본당 1층 복도 통로에, 정화기는 교역자실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 영어예배부에서는 오는 14일(수)과 15일(목) 충현기도원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딤후 3:14)는 주제 아래 이승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여름수련회를 실시한다.

이번 수련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 중언어로 진행할 예정이며, 연령에 관계없이 영어 이해가 가능한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또한 고국을 방문한 해외 거주 교포들이나 외국인들과 함께

교회설립43주년 기도원 부흥사경회

충현기도원에서는 교회설립 43주년을 맞으며 기념 부흥사경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감사: 김 오 용 목사 (동일로교회 담임목사)
- 일시: 1996. 9. 2일 밤~ 6일 새벽까지
- 장소: 충현기도원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산 9-1
☎ 0347-66-5425, 65-5472

참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전도의 기회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부성 집사(563-5334)나 장영옥 권사(543-3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임마누엘찬양대는 오는 14일(수)~16일(금)에 홍익대 수양관에서 박경한 목사, 장기범 선생을 강사로 모시고 여름수련회를 실시한다.

▶ 청년1부는 지난주 8월 5일부터 8일까지 춘천 동면 지역에 40여명이 나가 봉사 및 전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터키 단기선교 훈련을 떠난다. 인솔에 김동석 청년1부 지도 목사.

청년2부 여름수련회 '성화'를 주제로

8월 19일(월), 20일(화)

청년2부 여름수련회가 오는 8월 19일(월), 20일(화) 이틀간 저녁 7시부터 갈릴리홀에서 개최된다.

요한복음 17장 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청년2부 여름수련회는 특별히 현재 개혁신학교 조직신학교수인 이정석 목사를 강사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부분인 '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성화의 의미와 방법, 거룩이란 무엇이며 성화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회원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교우들의 참석도 바라고 있다.

교사양성부가

우리 부부에게 준 유익들

장 용 희

(제2-2교구, 교정전도회)

할 헬루야!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지 사십 년이 되면서도 구원의 확신 없이 그저 주일날 한 시간 예배드리는데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처럼 말로는 기독교인이라 하고 이 세상 모든 일에 다 참여하면서 지내온 지난 날이 참으로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뿐입니다.

그 동안 직장 관계로 전국을 다 순회(?)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해외 근무까지 하면서 많은 세월을 아무런 보람없이 영원한 과거로 흘려 보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 출석하면서 틈틈이 김창인 목사의 설교 말씀을 온정으로 사모하던 중, 지난해 말 경에 가족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충현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윤삼중 목사의 새가족부를 수료하는 날, 교회학교 장년1부에 입학하여 정광옥 목사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공부하면서 전도회에도 가입하고 선교회에도 입회하였으나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코자 봉사할 곳을 기도하던 중, 전도회 모임 중에 교구 이종대 목사님께서 '봉사 좀 하셔야죠' 하시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 교사양성부에 부부가 함께 수강신청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막강한 강사진

으로 짜여진 강의에 시간이 너무 짧아 다소 아쉬움도 있었으나 성봉환 목사의 모세오경부터 박경한 목사의 학습지도법 시간까지 개근하여 부부가 나란히 개근상과 수료증을 받아 가족예배 시간에 딸들에게 자랑하였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바쁘신 중에도 강의 교재를 준비하시고 열심으로 지도하여 주신 목사님들과 또 이준우 강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나의 지난 날을 후회하여 나의 자녀들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고 새벽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함을 확인하고, 각기 소속된 부서의 목사님 자람을 할 때면 대학부 장봉생 목사님, 고등부 한관수 목사님 모두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교생실습을 마치고나서 발령나는 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순종하며 봉사하기로 부부가 서로 다짐하였답니다. 아무런 공로없는 내게 이처럼 아름다운 전곡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교회 봉사를 시작할지 망설이는 분은 이번 학기에 교사양성부에 신청하여 보십시오. 자신감과 감사함이 생김은 물론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분명히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름수련회를 다녀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아 신앙생활과 나의 책임 다하기로

이 동 주(중동1부)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중동1부에서는 마지막인 여름수련회가 있었다.

나는 기차단이어서 면회회원의 임원들, 생가대장, 싱어룸팀 친구들과 함께 선별대로 하루 먼저 기도원에 갔다. 숙소 청소 및 짐 정리 등, 정신없이 일을 하다보니 하루가 후딱 지나갔다. 수련회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레었다.

첫째날, 개회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점심을 먹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에서는 빙고 게임과 그 과정을 통해 모르던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어서 좋았고, '열전! 달리는 중동1부'에서는 임의로 4팀으로 나누어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여러 경기들을 통해 즐거운 단합의 시간이 되었으며, '홍해를 건너서'에서는 바 때문에 물이 끓어 끓어서 홍해처럼 건너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웠지만, 중동1부 친구 각자의 죄를 적은 종이를 모두 태우고 회개하는 마지막 포스트의 촛불의식이 매우 인상 깊었다.

둘째날에는 아침 일찍 QT를 가졌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여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인지 하루의 시작에 순조롭고 편하게 느껴졌다. 곧 이어서, '나도 돕는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아침을 굶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상의 나라를 떠고'와 '실화의 날자취'는 각각 그림과 촌극으로 각 조마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번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설문 조사 결과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산행기도회였다. 부흥회가 끝난 후, 산에 올라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전심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일파를 지났을까. 무릎과 발이 저려와서 나는 조금 쉬다가 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나는 다시 생각했다.

'그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냐!'

나는 다시 힘을 내어 기도했다. 눈물이 흘렀다. 시간에 지나자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잠시 마비되었던

것이다. 눈이 뚱뚱 부어서 산을 내려올 때, 이미 시계는 자정을 훨씬 지나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지막 날, 체조와 QT로 상쾌한 아침을 맞았다. 시간이 지연되어 선택특강을 셋째날 하게 되었다. 나는 '기독교와 음악'과 '창조냐, 진화냐?'를 들었다. 나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골라서 들으니 더욱 흥미가 생겼다. '도전! 성경 퀴즈왕'은 4팀(믿음, 소망, 사랑, 충성)으로 나누어 조장들이 대결을 했다. 사랑과 조장이 계속 '삼손'이라고 답하거나 ('나일강'이란 답도 나왔다). 답을 모르고도 무조건 손을 드는 엉터리 등의 에피소드도 많았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설문지, 소감문 작성 후, 폐회에 배를 끝으로 수련회 일정을 모두 마친

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느낀 점도 많고 재미도 있었다. 결심한 점도 적지 않다.

우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불평, 불만하는 생활을 절제해야겠다. 잘 알고 있는 단체 생활에 필요한 협동과 단합도 그 실천에 노력을 해야겠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에 못지 않게 나의 책임을 다해야겠다.

가장 중요한 것, 마음 속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시어 여름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내 가슴 속 깊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